

태양광 · LED · 2차전지 “기지개”

블루오션 3종 영업개선 기대 ... 한화그룹·LG화학·삼성전자 안간힘

태양광·LED(발광다이오드)·2차전지 사업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기회복과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맞물려 201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영업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태양광산업은 한화케미칼, 삼성SDI, 현대중공업 등의 선투자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재정위기와 중국과의 과당경쟁으로 원료 폴리실리콘(Polysilicon) 가격이 2008년 kg당 300달러에서 2013년 16달러까지 폭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SDI(대표 박상진)는 결정질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고 현대중공업(대표 이재성)도 KCC와의 폴리실리콘 합작을 포기했다. 2013년 들어 중국 선택(Suntech)을 포함한 한계기업들도 정리되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2014년 시장규모가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대표 김승연)는 2014년 태양광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계획이며, 경쟁기업들도 재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ED(Light Emitting Diode) 시장도 중국의 과잉투자에 따른 가격폭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1/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7% 이상 증가했고, 세계 2위 삼성전자와 세계 4위 LG이노텍의 가동률도 개선되고 있다.

LED조명은 제조코스트 하락과 에너지 절약 노력에 힘입어 2013년 하반기에 시장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대표 권오현)는 LED조명을 생활가전사업부로 옮겨 2012년 4월 미국 조명박람회에서 100종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영업실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LG이노텍도 2012년 5월 LED사업을 독립조직으로 승격시켰다.

LG화학(대표 박진수)은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y) 등 2차전지 생산을 위해 7월1일부터 미국 배터리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밝혔고,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등 2-3위들도 공급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문화일보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7>